

# 後進國勞使關係의 形成과 그 分析(其一)

金 植 鉉

<目 次>	
序	
1 章	接近方法
2 章	後進國勞使關係와 그 環境
3 章	後進國勞使關係의 形成要因(一觀點)

## 序

一國의 勞使關係는 餘他の 어느것과도 반드시 同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制度的인 移植이 一般화된 오늘날의 實情에서도 이와 같은 外形의 制度는 하나의 表皮에 不過한것이고 實質的인 勞使關係의 內的秩序와 그 動態는 移植된 制度만으로 形成되는 것은 아니다. 本論稿는 이와 같은 實在的인 勞使關係의 內的秩序와 動態를 支配하는 것은 어떤 要因인가 하는 問題意識에서, 特히 後進國의 경우에 顯著히 作用하는 要因을 分析할 수 있는 勞使關係의 接近方法을 摸索하고자 한 것이다. 最近産業化와 勞使關係形成의 國際比較를 통한 研究成果<sup>(1)</sup>와 現實的인 制度의 綜合科學의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은 이에 對하여 有用한 暗示를 提供하여 그것을 後進國勞使關係의 接近에 適用하려는 試圖가 바로 그것이다. 實際로 勞使關係의 概念은 그 接近方法에 따라서 大端히 多岐한 內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經濟的, 社會的 意味關聯은 獨自的인 方法으로 體系化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따른 管理的 乃至 政策的인 立場에서 接近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多樣한 接近方法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勞使關係의 問題는 恒常 産業社會의 諸特徵을 究明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焦點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勞使關係가 産業社會의 가장 重要한 社會關係의 一側面이라는데 緣由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勞使關係研究의 從來 傾向은 獨自的인 領域을 가지지 못하고 各種 側面的인 接近에 머무르고 있었다. 실상 「勞使關係가 獨自的인 分野임을 主張하고, 또한 勞使關係라는 特殊한 社會關係가 存在한다 하더라도, 從來 勞使關係의 研究는 統一的 分析內容은 가지지 못하고 歷史學, 經濟學, 政治學, 社會學, 法學, 心理學等의 諸分野의 研究가

(1) Clark Kerr, John T. Dunlop, Frederick H. Harbison and Charles A. Myers,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1960.  
 Frederick H. Harbison and Charles A. Myers, *Management in the Industrial World*, 1959.

交錯되는 領域이었으며……自體의 理論的 結實이 없고 史實的이고 敘述的이었으며 大部分의 研究는 經濟學的 分析에 의한 賃金中心의 研究, 社會學, 人類學의 分析手段을 利用한 產業組織의 應用的 研究」<sup>(2)</sup>等 他分野의 特殊研究領域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바로 勞使關係가 社會의 行爲의 各種要素를 內包하는 「關聯者 및 그 集團의 綜合的 關係」라는 事實에 基因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總體的 關係(wholesome relation)로서의 勞使關係를 그 正面에서 接近하기 爲해서는 그總體的 關係를 直接 分析할수 있는 對象을 定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勞使關係自體의 分析構造가 가지는 對象의 定立이 于先 必要하게 된다. 이문제를 第1章에서 考察하고 이와 같은 對象의 定立위에 本小論의 課題인 後進國의 勞使關係가 成立하는 重要한 環境을 分析的으로 整理하기로 한다.

## 第1章 接近方法

歷史적으로 보아 어느時代에 있어서도 勞使關係의 問題가 實質적으로 存在하고 있었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原始, 古代 및 中世社會에 있어서도 財貨의 生産을 中心으로 하여 勞動擔當者의 問題, 具體的 勞動方法, 및 成果分配等의 問題가 있었던 것이다.<sup>(3)</sup> 그러나 西歐에서 成立된 近代의 生産機構와 生産方法의 基盤위에 形成된 獨特한 形態의 勞動者와 經營者集團이 分離되어 이들도 作業場에서나 廣範한 社會에서 獨自的인 關係를 形成하기까지는 勞使關係의 問題가 하나의 特徵의意味를 갖는 社會關係로서의 固有의 研究 領域을 形成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卽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그 勞使關係의 諸問題가 家族關係의 延長이었으며 古代奴隸社會에서는 政治制度의 延長이었고<sup>(4)</sup> 中世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宗教와 密接히 關聯된 政治制度의 延長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勞使關係가 本格的으로 獨自的인 領域으로 成立한 것은 產業社會의 成立과 때를 같이 한다. 왜냐하면 產業社會에서 처음으로 勞動者와 經營者란 獨特한 勞使關係의 主體가 形成되고 이 勞使關係는 家族關係, 宗教關係 乃至 政治關係에서 分離되어 自體의 領域을 가지게 된 까닭이다. 卽 產業社會에서 財貨가 企業的 生産制度와 近代科學的인 知識에 基礎를 둔 技術을 應用하여 動力과 機械에 依한 生産方式을 通하여 供給된다는 一聯의 制度的, 技術的인 事實은 人間의 全般的인 社會生活의 構造를 그 以前의 어느 社會와도 다른 獨特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sup>(5)</sup>

(2) John T. Dunlop,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1958, p. 6.

(3) John T. Dunlop, *op. cit.*, p. 2.

(4) W. Arthur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1955, p. 107 ff.

(5) Clark Kerr & others, *op. cit.*, p. 23.

産業社會로特徵지워지는 이와 같은社會에서生産에의參與者는 그生産上의機能에 따라서勞動者와管理者의地位로區分되고 이들의相互關係는 그社會의政治體制의如何를莫論하고特定한獨自의關係를成立시키게 되었다. 卽 産業社會의基礎위에서勞使關係는生産場所中心으로具體的인 그主體가成立되고産業社會의獨特한生産制度和生産方式에依하여 이들主體間의相互關係는作業場에서나一般社會에서餘他の社會關係와는다른排他的인獨自의領域으로成立된다는事實이다.<sup>(6)</sup> 이와같이企業의生産을中心으로成立하는産業社會의勞使關係는勞使의分離라는共通的現象과함께産業化의環境에따라서그具體의內容은獨特한樣相으로나타나게된다. 卽 具體的인勞使關係는具體的인産業的環境에따라서特徵的인形態를가지게된다는것이다.

要컨데勞使關係의成立은本質的으로近代的産業化의環境에서,비롯하는것이며産業社會의重要한社會關係로成立되는管理者와作業者(또는經營者와勞動者)間의關係라할수있다. 이와같은概念上의集團乃至個人的相互關係는하나의總體的人間關係로成立되며各種의意味關聯을그自體內에內包하고있는것으로理解된다. 그러나産業社會가歷史的으로賃勞動이란獨特한形態의勞動集團을形成하여그것이經營과對峙된다는意味에서從來의勞使關係는一般的으로産業의成果의配分關係를中心으로한經濟關係로理解되어그經濟的意味關聯의究明에만集中되어왔던것이事實이다. 그러나經濟關係만이勞使關係를形成하는唯一한內容은아니다.勞使關係가經濟關係와區別되는가답은그것이經濟關係를그自體에包含하고있는集團乃至個人間의社會關係를全面的으로內包하는總體的인關係라는點에있다.<sup>(7)</sup> 卽 勞使關係는그社會의非經濟的要因卽文化的要因과政治的勢力關係또는技術的的要因에依하여根本的으로規定되는面이있기때문에一國의勞使關係는그나라의獨特한經濟的,文化的,政治的諸環境과密接한關係를가지고成立한다. 따라서勞使關係가本質的으로企業의生産機構를中心으로하는産業社會에있어서社會的인財貨의生産과그分配關係를中心으로하는雇傭者와被雇傭者間의關係라는事實에서그經濟的內容이重要한意味를가지는것이기는하지만그것만으로勞使關係의本質을完全히把握할수는없는것이다.勞使關係의分析體系가經濟分析的方法에置重하여經濟的意味關聯의分析을主로하게되면이와같은總體的意味의勞使關係를決定하는餘他の重要한要因分析을無視하거나적어도第二義的인것으로미루게되고그結果는産業社會의基本的인社會關係의內容이되는勞使關係의全貌를把握할수가없게된다.

(6) Clark Kerr, F.H. Harbison, J.T. Dunlop, Charles A. Myers, "The Labor Problem in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Labor Review*, March, 1955, p. 223 ff.

(7) Dunlop에依하면이와같은意味의勞使關係를'勞使關係시스템'이라하여T. Parsons의'social system'에對한'下位시스템'으로理解하여經濟시스템(economic system)과對立되는分析的體系로發展시키고있다. (cf. John T. Dunlop; op. cit., p. 4-7, Talcott Parsons and Neil J. Smelser; *Economy & Society*, 1956, p. 8, p. 28-32.

특히 後進國에 있어서 勞使關係의 形成은 그 産業化時期의 落後와 함께 獨自의 文化的 經濟的 環境과 政治의 情況下에서 成立된다는 事實로 因하여 그 産業化의 初期에 있어서 重要한 支配要因이 되는 非經濟的, 文化的 要因의 作用이 그 勞使關係의 形成에 미치는 影響은 더욱 顯著한 것이기 때문에<sup>(8)</sup> 勞使關係의 經濟的 分析에 補充하여 餘他要因의 分析도 그 自體內에 包含하는 새로운 勞使關係의 分析體系가 더욱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다.

要컨데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勞動者와 經營者와의 相互 關係는 그 經濟的, 文化的, 政治的, 環境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形成된다는 觀點에 서면 이와 같은 諸環境要因이 勞使關係의 各 主體間의 關係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課題를 勞使關係 研究의 새로운 領域으로 提示할 수 있게 된다. 이에 勞使關係研究는 그 分析領域을 經濟關係의 分析, 政治關係의 分析等 他領域에서 獨立시켜 關係主體間의 具體的인 事實의 關係를 中心으로 하여 部分的으로는 經濟分析等 他分野의 分析領域과 重複領域을 가지기도 하지만 事實的인 總體的 勞使關係를 對象으로 하여 獨自의 分析的 體系에 의하여 接近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勞使關係에 關한 새로운 接近方法은 各己 獨自의 經濟的, 文化的, 政治的 基盤을 가지고 産業化의 課題에 直面하고 있는 後進諸國의 勞使關係의 諸特徵의 局面을 分析하는데 보다 現實的인 方法이 될 수 있다. 그 理由는 從來의 西歐의 「自由主義의 基盤위에서 資本家의 挑戰에 대한 反應으로서의 勞動運動을 中心으로 展開한 理論」<sup>(9)</sup>이 그와 相異한 基盤위에 서있는 大部分의 新産業化의 諸國에 對해서는 有用한 것이 될 수가 없기때문이다. 大部分이 産業化의 初期過程 乃至 門前에 서있는 後進國에 있어서 勞使關係의 諸特徵의 樣相은 經濟的 要因만이 아니라 오히려 文化的 政治的인 環境의 影響에 의하여 形成되는 면이 支配的인 現象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勞使關係의 分析體系의 試圖를 우선 內部的 分析構造에서 始作하여 다시 그것을 後進國의 社會的 基盤과 關聯시키는 方法을 取하기로 한다.<sup>(10)</sup>

#### 勞使關係의 內部的分析構造 \*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勞使關係의 內部的 分析 構造는 「關係主體들이 一定한 産業的環境에서, 그들의 關係를 結合하는, 共通理念에 依하여 具體的인 環境의 影響下에 主體들 間의 關係를 規定하는 諸規準을 形成하는 것」이라 理解될 수 있다.<sup>(11)</sup> 이때 勞使關係는 우선 主體間의

(8) Clark Kerr & others,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p. 78.

(9) Clark Kerr and Abraham Siegel, "The Structuring of the Labor Force in Industrial Society; New Dimension and New Ques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Jan. 1955, p. 151.

(10) Dunlop의 '勞使關係시스템'에 의한 分析上의 問題領域으로 ① 勞使關係시스템과 社會全般과의 關係 ② 勞使關係시스템과 經濟의 시스템과의 關係 ③ 勞使關係시스템 自體의 內部的 構造의 셋을 들고 있다. (Dunlop, op. cit. p. 7).

\* Dunlop의 體系를 要約한 것이며 同書의 具體的 實例는 모두 省略하였다. (cf. Dunlop, op. cit. pp. 33-306).

(11) Dunlop, op. cit., p. 7, pp. 380-389:

關係라는 觀點에 선다.<sup>(12)</sup> 主體는 (1) 經營者와 그 組織 (2) 勞動者와 그 組織 (3) 關係政府機關이 된다. 經營者는 産業生産의 管理者로서 産業過程의 指揮한 職能的役割(責任)이 있으며 勞動者는 生産作業活動의 直接的 擔當者로서 經營者의 指示에 따를 職能的 義務가 있다는 點에서 兩者는 直接的인 相互關係를 形成한다. 勞動者의 組織은 반드시 公式的으로 組織化된 것만을 意味하지 아니하며 勞動者가 經營者와의 關係에서 그 行爲가 共通的으로 規制되는 勞動者의 行爲 集團은 어느것이나 勞動者의 組織으로 看做된다. 實際로 勞動者는 個人으로서 또는 組織單位로서 經營者와 關聯을 맺고 있으며 그때마다 相異한 關聯意味를 가지고 있다. 이는 勞動者 自身の 組織이 多岐할때 個別勞動者는 二重的 成員이 되기도 하고 또한 個人과 組織은 모두 同一하다라도 組織相互間의 關係는 相互競爭的일수도 있고 補完的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勞使關係의 主體로서 勞動者의 性格은 多樣한 內容을 가지는 것이다. 經營者는 반드시 生産手段의 所有者만을 意味하지는 아니하며 企業的 生産의 實質的 運營者를 말한다. 政府의 雇傭者로서의 機能도 여기에 包含된다. 마지막으로 政府機構는 政府가 獨自的인 意思主體로서 經營者와 勞動者의 關係에 介入되어 經營과 勞動에 關한 諸問題에 廣範하게 關聯하고 那 決定은 勞使關係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勞使關係의 直接 當事者는 아니지만 當事者間의 關係에 對한 調整, 統制, 立法等의 直接的 方法으로 勞使關係를 規制하는 하나의 重要한 主體로 成立한다.

勞使關係의 主體들은 産業的 諸環境위에서 作業社會와 一般社會全般에서 그들의 關係를 規定하는 各種의 規定(rules)을 만든다. 이와 같은 規定은 作業關係에서 부터 始作하여 社會的 集團으로서의 關係에 이르는 廣範한 것으로서 作業規定, 賃金規定等의 私的인 規定에서 勞使關係에 關聯되는 法律, 法規에 이르는 各種範圍의 明示的規定과 其他 經營者와 勞動者(또는 雇傭者와 被雇傭者)와의 關係를 規定하는 企業內外의 一切의 明文 不文의 諸規定(一般的으로 通用되는 慣習, 慣例를 包含하는)이 包含된다. 이와 같은 諸規定은 主體間의 關係가 一定한 環境위에서 成立할때 環境이 主體間의 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具體的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環境과 關聯된 主體間의 關係로서의 勞使關係는 거기에 成立하는 諸規定에 의하여 具體化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勞使關係는 이들 規定의 形成과 그 運用을 中心으로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事實上 經營者와 勞動者間의 關係인 勞使關係에 政府主體가 介入되는 것도 이와 같은 規定의 形成主體로서의 關聯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環境은 主體間의 關係인 勞使關係를 規制하는 基盤이 되며 勞使關係란 이와 같은 意味에서 環境의 基盤위에서 成立되는 主體間의 關係라 할 수 있다. 勞使關係가 主體間의 關係란 點에서는 普遍的 內容이지만 그主體가 各己 獨特한 環境위에서 그 環境의 制約과 이에 對한 反應形態로 나타날때는 相異한 形態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바로 環境이 勞使關係에 對하여 가지는 意味를 提起하게 된다.

(12) Dunlop, op. cit., p. 7.

그러나 環境은 現實의으로는 複合的인 內容으로 勞使關係를 規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環境이 具體的인 勞使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究明하기 爲해서는 特定屬性에 따라서 環境을 分析的 要因으로 體系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般的으로 勞使關係의 環境은 그것이 勞使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爲한 分析的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要素로 나눈다. 그 첫째는 作業場과 作業社會의 技術的 特徵이며 다음은 主體에 미치는 市場 및 豫算的 制約이다. 마지막으로 一般社會의 勢力分布가 各主體의 地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勢力的 環境要因을 들 수 있다.

(I) 技術的 要因: 作業社會의 技術的 要因은 그 勞使關係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重要的인 영향을 미친다. 卽 經營形態, 管理組織, 監督問題, 勞動의 質的 量的需要構造 그리고 公共統制의 可能性等に 面에 걸쳐서 作業場의 技術的 制約上的 特徵이 勞使關係의 形態를 決定하게 된다. 例를 들면 產業別勞使關係의 形成은 그 產業이 가지는 共通的인 技術的制約에 依하여 同一產業에서는 여러 面에서 類似한 形態의 勞使關係가 成立하여 이때 技術的 要因이 그 分析에 있어서 重要的인 基準이 된다. 또한 相異한 社會的 基盤을 가지는 國家間에 있어서도 同一한 業種의 產業에 있어서 그 勞使關係는 類似한 技術的 環境을 가지며 그것이 他環境要因에 比하여 支配的으로 作用할 때에는 類似한 勞使關係의 樣相으로 나타나게 된다.<sup>(13)</sup> 이와 같은 技術的 要因이 勞使關係에 미치는 영향은 一般的으로 產業의 製品乃至 서비스 內容에 支配되는 것으로서 이는 主로 技術的으로 特徵的인 作業活動의 性質과 規模, 地域的 範圍와 所在 等の 面에서 勞使關係의 形態를 規定하므로써 經營 및 勞動의 類型을 決定하고 그 相互關係를 規定하며 政府介入의 契機와 그 介入形式을 規定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技術的 環境은 企業別 業種別 勞使關係의 特徵形成의 重要 要因이 된다. 國家別 勞使關係의 體系에서는 相對的인 技術全般의 水準이 重要的인 特徵形成要因이 된다.

(II) 市場 및 豫算的 制約要因: 製品市場關係를 中心으로 한 財政的 制約要因은 勞使關係에 重要的인 影響을 미친다.<sup>(14)</sup> 이는 企業의 市場을 中心으로 한 競爭關係와 그와 같은 競爭의 壓力이 經營者에 對하여 어떠한 反應으로 나타나는가의 두가지 側面을 갖고 있다. 前者는 一般的으로 市場에 있어서의 企業의 位置이며 後者는 企業의 財政的인 運營方式이다.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은 그 勞使關係에 주는 市場의 相關關係에 依하여 同質化되는 傾向이 있는 것은 前者의 例이며 競爭的 優位에 있거나 獨占企業乃至 公企業에서는 그 市場制約과 勞使關係와의 關係가 甚한 競爭的 地位에 있는 企業에서 보다 密接히 關聯되어 있지 아니한것은 後者의 例이다. 또한 市場과 豫算的 制約要因은 作業場의 技術的 特徵을 直接 規制하는 面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卽 市場要因은 作業活動의 規模와 技術의 水準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市場要因의 分析은 製品市場과의 關聯되는 面에서는 企業의 競爭的 地位와 이에

(13) cf. Clark Kerr and Abraham Siegel, 'The Interindustry Propensity to Strik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dustrial Conflict*, ed. by A. Kornhauser & others, 1954, pp. 189-212.

(14) J.T. Dunlop, *Wage Determination under Trade Unions*, 1949, p. 95 ff.

따른 豫算統制의 形態와 強度를 中心으로 그것이 企業的인 勞使關係構造에 미치는 影響과 競爭의 製品市場關係를 中心으로 勞使關係가 同質의 系列化하는 樣相 그리고 또한 市場關係의 變動狀況과 規定의 改變 및 存續期間과의 關係(예를 들면 市場의 變動은 收入의 變動으로 나타나서 特히 報酬關係와 雇傭關係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市場類型(注文 或은 市場生産)과 勞使關係와의 關係等의 要因을 中心으로 分析할 수 있다.

市場要因이 勞使關係의 系列化의 範圍를 어떻게 決定하느냐 하는 點은 企業單位勞使關係의 同質化하는 範圍가 市場要因에 依하여 規制되는 點을 究明하는 것이 된다. 모든 企業이 嚴格한 市場과 豫算의 論理에 支配되는 點은 同一한 것이지만 어떤類의 企業集團은 그 勞使關係의 形成에 있어서 製品市場과 勞動市場의 同質性으로 因하여 相互 密接한 影響을 미치면서 同質의 類型으로 되는 傾向을 가지게 된다. 또한 勞使關係의 決定權이 作業場所 卽 企業單位에 接近되어 있을수록 勞使關係의 特徵이 市場要因(市場相關의인 依存關係)에 依하여 決定되는 傾向이 크게 된다.

製品市場 乃至 豫算의 制約이 根本적으로 變動될 때 勞使關係의 系列的인 關係와 그系列範圍도 變動하게 된다. 特히 技術의 變動으로 製品市場에서의 競爭構造가 變化할 때(新製品의 出現, 新製法の 發見等) 勞使關係의 關聯體系는 變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全般的 市場規模의 擴大 乃至 縮小가 勞使關係의 構造에 重要한 變動要因으로된다. 特히 顯著한 例로 關稅障壁의 設定 或은 除去에 따라서 市場範圍가 變動될 때 나타나는 競爭關係의 變化가 勞使關係에 미치는 影響이 큰것을 들 수 있다.<sup>(15)</sup>

市場 및 豫算上의 特徵은 企業間 勞使關係規定의 同質성과 또한 規定의 決定權限의 集中(產業的 國家的) 또는 分散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 市場環境이 多樣한 差異를 갖일 때 勞使關係規準의 決定은 一般的으로 作業單位(企業)로 내려가게 되고 勞使關係의 同質성은 적어진다. 이 경우에는 비록 多數의 企業을 規制하는 統一的 規定이 形成되더라도 外廓만 提示될 뿐이며 實質的인 內容은 現場水準에서 具體적으로 市場環境의 特徵에 따라 決定된다. 要컨대 市場 혹은 豫算環境의 同質성이 勞使關係에 미치는 影響은 市場的 地位가 多樣한 경우에는 勞使關係의 (規定)決定中心點이 分權化되고 統一的 規準은 一般的으로 現場關係를 實質적으로 規制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事實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은 原理는 特히 國家間의 賃金制度의 比較에서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sup>(16)</sup> 國家에 따라서 賃金決定權은 多樣한 것이지만 集中化된 경우에 中央에서 一律적으로 決定한 賃金水準이 企業에 미치는 影響力은 形式的 規制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 普通이다. 實質적으로는 企業의 市場 및 豫算關係에 依하여

(15) International Labor Office, Social Aspects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Report of a Group of Experts, Geneva, 1956.

(16) J.T. Dunlop and M. Rothbaum;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age Structure", *International Labor Review*, April 1955, p. 3 ff.

具體的賃金水準이 決定되며 高賃金政策을 쓰는 企業의 경우에 이와 같은 規定은 無意味한 것이 된다. 一般적으로 好況의 경우, 勞動의 不足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外制의水準은 最低賃金水準의 意味를 갖일 뿐이고 失業과 不況으로 因한 市場制約과 整備된 勞動市場이 存在하지 않을 때는 實際 企業의 賃金水準은 그보다 더욱 낮은 水準에서 決定되는 것이 普通이다. 이와 같이 市場과 豫算環境要因의 多樣性은 賃金政策의 運用에 큰 影響을 미친다. 市場 및 豫算環境의 差異는 賃金以外에도 生産標準 人員基準等 統一的으로 規定된 制約이 實質적으로 個別企業의 水準에 와서는 그 市場의 制約에 支配되어 施行不可能한 경우가 많다.<sup>(17)</sup> 이와 같은 勞使關係의 諸規定을 中心으로 한 決定權이 產業別 或은 全國적으로 一律적으로 決定될 때 具體적으로 作業場에서 勞使關係를 規制하는 實質的 規定은 現場水準의 別個單位에서 決定되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 된다. 西歐諸國의 勞使協議會와 勞組와의 關係는 다른 많은 重要한 形成要因을 勿論 內包하는 것이지만 兩組織이 分業의 關係에 依하여 市場環境의 差異에서 오는 現場의 事情은 더욱 緊密하게 反映하기 위한 一方便이란 點에서 兩立的 存在가 形成되는 하나의 理由를 찾을 수가 있다.<sup>(18)</sup>

市場關係가 勞使關係에 주는 影響을 分析하는 다음 要因은 企業規模에 미치는 影響이다. 規模가 클수록 經營者의 管理技術을 高度化되고 專門化되며 組織은 複雜하여지고 意思疏通의 問題가 重要하게 되며 勞使關係를 規定하는 諸規定은 複雜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勞動者의 構成은 複雜하게 되며 專門的 技術者의 集團이 擴大한다. 또한 巨大한 規模의 企業은 公衆關係가 勞使關係에 作用하게 된다. 卽 勞使關係는 公衆關係와 一部 同一한 領域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大企業이 차지하는 社會的 比重에 原因이 있다. 또한 企業의 長期的 收縮과 擴張 및 그 「뎀포」에 따라서 勞使關係는 影響을 받는다. 마즈막으로 市場環境은 勞動力市場의 特徵을 통해서도 影響을 미치는 것이며, 이點은 技術의 環境의 制約에 依한 勞動需要事情에서 이미 본바이지만 勞動者의 言語, 人種, 習慣, 宗教等 文化的인 側面이 勞動市場을 通하여 勞使關係에 影響을 미친다. (이 要因은 後進國 勞使關係에 特히 問題點이 된다.) 勞動市場事情의 泛迫은 特定勞動 또는 技術에 다른 需給間의 不均衡이 經營者에 影響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勞使關係를 規制하는가 하는 內容이 된다. 勞使關係의 豫算的 環境要因은 또한 總費用中에서 勞務費가 차지하는 比率에 따라서도 影響을 받는다. 要컨데 市場環境이 勞使關係에 미치는 影響은 市場의 競爭關係와 豫算上의 制約이다. 競爭企業間의 同質的 勞使關係의 成立은 主로 이와 같은 各種 市場의 要因에 基因한 것이지만 現實적으로 勞動者들은 恒常 自體의 組織의 關係를 中心으로 同質化하려하고, 經營者는 關聯競爭企業과 同質化하려하며 그것이 一致하지 않는다는 事實이 紛爭의 重要한 原因이 될 수도 있다.

以上 勞使關係의 環境 卽 主體의 環境의 技術的 要因과 市場要因을 分析의 立場에서 보았

(17) Dunlop,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p. 79.

(18) Ibid., p. 79.



다. 卽 餘他的 環境이 同一하다면 技術的 環境 或은 市場環境의 異質性은 그 勞使關係로 하여금 異質에 形態를 만들 것이라는 立場에서 이들 두 要因이 勞使關係形成의 基本變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現實的인 環境은 單純한 形態로 存在하지 않으며 複合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技術的 要因은 企業別 或은 業種別 勞使關係의 比較分析에서 特徵形成에 가장 重要的인 影響을 주는 要因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點에 있어서 市場要因도 같은 意味를 가지는 것임은 볼 수 있으나 그 보다 더욱 複雜한 內容을 가짐을 알 수가 있었다. 企業單位, 產業(業種)單位의 勞使關係分析에 있어서 이 두 要因은 重要的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單位의 勞使關係의 諸特徵의 形成에 있어서는 全般的인 技術的 相對的(外國과의)水準 或은 全般的인(國際間的) 競爭關係에 있어서의 地位等의 面에서 重要的 分析의 要因이 될 수도 있다.

(Ⅲ) 마지막으로 社會의 勢力關係는 一般社會에 있어서의 相對的인 勢力關係가 勞使關係의 形成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點은 勞使關係의 主體가 內部的인 相互 交涉關係에서 相對的으로 가지는 勢力關係이라기 보다 오히려 廣範한 一般社會의 勢力關係에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的 勢力關係가 바로 勞使關係形成의 主要環境이 되는 것이다. 特히 國家間的 勞使關係의 差異의 分析에 있어서 同一한 技術的, 市場環境에 있는 產業(或은 企業)에 있어서도 그 勞使關係의 內容(例를 들면 諸規定)은 全혀 相異한 形態로 나타나게 될 때 社會의 勢力環境이 重要的 要因으로 나타나게 된다.<sup>(19)</sup> 그것은 勢力環境이 國家單位에 있어서의 勞使關係形成에 대하여 同質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sup>(20)</sup>

## 第 2 章 後進國勞使關係와 環境 \*

勞使關係가 具體的으로 經營者, 勞動者 그리고 政府의 三主體가 特定한 環境위에서 相互關係를 形成하는 것으로 定義되고 이들 主體가 特定 環境위에서 形成하는 諸般 現實的 規定은 一般的으로 勞使關係의 分析을 爲한 主要資料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資料의 分析은 環境의 考察을 基礎로 意味關聯을 시킬 때 可能的인 것이다. 卽 主體間的 關係로써 成立하는 勞使關係에 對하여 環境의 要因이 미치는 影響, 그리고 그것이 主體와는 어떻게 關聯되는가 하는 問題를 提起하게 된다. 이와 같은 問題를 다루기 爲해서는 먼저 勞使關係가 成立할 때 이에 미치는 環境의 意味를 分析的으로 整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家單位로 본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諸特徵을 解明하기 爲한 接近方法은 바로 그것이 成立하는 基本

(19) Dunlop, op. cit., pp. 95—96.

(20) Ibid., p. 97.

\* 本章의 構成은 主로 Dunlop의 構想과 Inter-University Study of Labor Problems의 研究結果를 結合한 것이다. cf. J.T. Dunlop,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pp. 307—316. Clark Kerr & others,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Chap. 3, 4, 5.

模型을 構成하는데서 始作하지 않을 수 없다.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內容도 前述한 Dunlop의 基本體系와 同一한 內部的 分析構造에 依한 接近이 可能하다. 그러나 後進國이 一般的으로 가지는 特殊한 環境의 要因은 그 國家單位의 諸般特殊型의 勞使關係를 形成하게 된다. 後進國의 勞使關係가 成立하는 產業化 그 自體는 前產業的인 基盤위에 產業的 生産制度와 生産方法을 導入하는 것을 意味한다면 先進國의 境遇에 一般的으로 그와 같은 產業化初期過程은 勞使關係의 主體가 되는 經營者(資本家의) 自身들의 主導下에 形成되어 있던 것이며 그들은 經濟的인 個人主義의 基盤에서 產業化過程에 있어서 經營者主體의 絶對的 地位를 確保하여 產業化의 環境을 造成하는데 完全한 主導權을 行事하면서 始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經營者의 主導權을 勞使關係의 形成에 있어서도 그것이 產業化意志로써의 經營者의 意志에 支配되어 經濟的인 個人主義의 基盤위에서 經營者와 勞動者의 關係는 不均衡의 勢力關係로서 特徵지워지고 以後 產業化過程의 成長과 함께 勞動者의 自主的 團結意識이 形成되는 緩慢한 過程을 通하여 勞使關係가 均衡勢力의 基盤위에 接近하게 된 것이다. 또한 先進國의 勞使關係의 形成은 그 產業化의 基盤이 되었던 前產業的 社會의 環境이 產業化에 必要한 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에서 成熟해 있었다는 面에서 諸般 產業的 環境의 胚胎를 그 自體의 傳統的 環境內에 가지고 있었다는 事實로 말미암아 後進國의 經驗과는 相異한 것이다. 끝으로 先進國의 初期產業化의 外的 環境은 그 生産力이 技術的 制約의 面에서 오늘날 後進諸國이 當面하고 있는 것과 같은 急激한 變動의 外部環境에 있지 않았다는 事實과 또한 產業化에 先進한 그들은 恒常 強者의 地位에 있어서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인 面에서 積極의 位置에 있었다는 事實을 包含하여 國家의 主體性이 모든 面에서 維持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產業化의 內部的 環境의 制約을 後進諸國의 犧牲위에 解決할 수 있었기때문에 勞使關係의 形成은 恒常 內生的인 것이었으며 外部的 衝擊의 影響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先進國의 產業化의 意味가 가지는 諸特徵이 그 勞使關係의 形成에 미치는 影響은 오늘날 後進諸國의 勞使關係形成의 環境과는 根本的으로 區別되는 點을 볼 수가 있다. 一般的으로 後進國의 勞使關係는 그 產業化의 時期와 自體의 文化的 傳統 그리고 그 產業化의 主體가 先進國과 다르다는 意味에서 先進의 經驗과는 判異한 環境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各種 環境要因의 重要性은 先進國의 경우에는 相對的인 先進이란 事實과 比較的 緩慢한 段階的인 產業化 過程에 依하여 明白히 되지 못한 것이지만 相對的 後進性의 克服을 한 諸國의 經驗에서 무엇보다 強調된 것은 產業化 主體가 個人的 經營者의 순수한 市場行爲만으로 成立될 수 없었다는 事實에 依하여 國家가 產業化의 意志로써 個人的 經營者와 함께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되었다는 點과 그리고 產業化의 時期가 環境의 差異를 形成하는 重要한 要素라는 事實 그리고 마지막으로 非西歐的인 諸國家의 產業化 經驗에서 自體의 固有한 非經濟的인 文化的 傳統이 重要한 要因으로 擡頭된다는 事實이다.

一國의 勞使關係形成에 根本的인 영향을 미치는 主要環境은 以上の 論據에서 自國內의 環境과 外部的 環境 그리고 産業化의 主體의 세가지 産業化의 形成要因과 一致되는 것이다. 結局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形成要因은 根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環境要因에 依하여 規制된다는 事實이다. 卽 (1) 自國內의 經濟的 環境(이에는 주로 自體의 獨自의 技術의 水準, 資源開發과 所得水準 및 構造, 市場經濟의 規模, 人口 등이 包含된다.)<sup>(1)</sup>와 (2) 非經濟的 環境<sup>(2)</sup> (여기에는 家族制度, 宗教倫理 등의 價値觀, 人種 및 階級構造, 法律, 政治構造 등이 包含된다)으로 나눌 수 있는 內部環境과 經濟的 非經濟的인 影響의 外部的 環境<sup>(3)</sup> 그리고 이와 같은 環境위에서 主體가 되어 産業化의 方向을 決定하는 産業化엘리트<sup>(4)</sup>의 三要素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要因과 關聯하여 産業化의 意味를 理解하면 後進國의 産業化 過程은 實際로 産業化엘리트들의 意志에 依하여 以上과 같은 外部環境과 接觸하는 內的 環境의 基盤위에 産業的 生産制度와 生産方法을 導入擴大하는 過程으로 理解된다. 産業化의 副產物인 勞使關係의 成立過程도 이와 같은 産業化의 要因에 依하여 規制되는 것이지만 勞使關係는 本質的으로 雇傭者와 被雇傭者와의 關係이기 때문에 以上の 諸要因은 勞使關係의 環境要因으로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環境要因은 勞使關係의 形成에 決定的인 影響要因이기 때문에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諸特徵을 說明하는 基本的인 分析環境이 된다. 이들 要因의 影響은 勞使關係의 直接的인 環境으로서 作用할뿐만 아니라 勞使關係의 主體를 通하여서도 顯在化하는 것이므로 勞使關係의 主體가 環境의 要因에 依하여 어떻게 形成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提起된다. 本章에서는 産業化의 主要因으로 後進國 勞使關係의 形成에 直接 關聯되는 前者의 三個의 主要環境과 外部環境의 要因을 考案하기로 한다.

I. 産業化엘리트<sup>(5)</sup> 最近의 研究結果에 依하면 一般的으로 産業化過程에 있어서 勞動者의 意識的인 抵抗이 社會에 주는 影響은 既往의 支配的인 意見이 있던 것 처럼 重要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sup>(6)</sup> 後進國의 産業化過程에 있어서 勞動者의 意思가 그 社會의 將來의 指向點을 決定하는 例는 極히 드문 일이며 또한 經營者의 權限도 恣意的으로 決定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後進國의 産業化가 西歐와 같은 土着資本家가 唯一한 主導權을 가지고 出發한 것이 아니며 一般的으로 經營者를 包含하는 産業化意志의 集團의 意思가 主要한 役割을 한다는 새로운 事實을 強調하기 爲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産業化의 意志는 國家單位의 産業化에 있어서 새로운 生産手段의 힘을 通하여 社會의 發展을 指向하려는 産業엘리트의 意志를 意味하며, 後進國의 경우에 이와 같은 産業化엘리트의 意志에 따라서 勞使關係가

(1) cf. Clark Kerr & others, op. cit., p. 100.

(2) Ibid., p. 78.

(3) Ibid., p. 103.

(4) Ibid., p. 47.

(5) cf. Ibid., p. 8.

(6) Ibid., p. 8.

形成되는 決定的인 環境이 造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産業化엘리프는 現實的으로 國家的 基盤과 外勢的 環境에 따라서 多樣한 形態로 나타나는 것이며 單一 或은 複合的 集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sup>(8)</sup> 이와 같은 産業化엘리프의 類型은 理想型的으로 다음과 같은 分類를 할수 있다.

(a) 封建的 門閥엘리프<sup>(9)</sup> 一般的으로 前産業的 環境의 支配者들이 그대로 産業化의 엘리프로서 成立될때 이를 封建的 門閥엘리프라 하며 그 中에서도 傳統的인 環境을 保存하러하는 封建엘리프의 共通的 特徵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生産手段과 技術의 適用에 不斷히 執着하여 單只 傳統的 環境에 對해서는 産業化의 目的遂行을 爲하여 妥協하는 現實主義者들이 純粹한 傳統主義者와 區別되어 産業化의 엘리프로 登場한다. 이와 같은 엘리프가 産業化의 主導權을 잡으면 그들의 特徵的인 意思가 産業化過程을 通하여 一貫하게 된다. 卽 溫情的 傳統의 行爲樣式이 産業化過程의 모든 部門에서 支配的이 되고 産業化와 妥協될 수 있는 모든 傳統的 基盤은 一般的으로 可能한 限 保存하는 方向을 取하게 된다. 急激한 社會秩序의 變動은 可能한 限 回避되고 「妥協」있는 變動이 그 行爲原則이 된다. 그러나 內部的인 壓力과 對外的인 壓力은 이에 對하여 차츰 不安定한 位置를 強要하게 되어 國內的인 經濟成長에 依한 또는 開放體制에서 外部的인 影響은 이와 같은 類의 엘리프의 存在는 拒否하게 되어 純粹한 形態로 存在할 수 없게 된다.

(b) 中産階級的엘리프<sup>(10)</sup> 歷史的으로 先進된 産業化 諸國에서 그 典型을 찾아 볼 수 있는 産業化 主體로서 一般的으로 中産階級이라하며 前産業的環境에서는 支配階級中에서도 劣勢의 少數集團이 經濟的인 主導權을 잡으므로 生成된다. 一般的으로 中産엘리프는 金錢的 收益을 唯一한 目標로 하여 産業的 生産方式을 導入하는데 있어서 「經濟的 個人主義와 政治的 平等主義」를 標榜하고, 스스로 産業化의 絕對的 主導權을 主張한다. 이들의 典型的 行爲基準은 個人的 利益이며 모든 個人은 自助的이고 獨立的인 意思主體로 看做되고 傳統과 共益보다 合理와 自利를 標榜하게 된다. 따라서 中産階級이 成立하는 初期産業社會의 特徵은 國家的 經濟의 發展은 個別的 利己行爲의 合理的 遂行의 自然的 結果로 보게 된다. 一般的으로 中産階級엘리프는 그대로 勞使關係의 主體로서 經營者의 實權을 가지고, 보다 主導的이 되며 勞動者는 보다 積極的인 集團勢力化하는 傾向이 있다. 後進國의 경우에는 그 産業化의 主體로서 國家의 役割이 確立되지 아니한때 主로 商業資本家들이 産業資本으로 轉換하므로써 中産階級類의 主導權을 主張하지만 그들의 産業的 無經驗과 이에 따른 非能率 그리고 合理的 經濟行爲를 造成하는 市場環境의 缺如로 因하여 短期的 商業的 收奪을 指向하는 傾向을 보이는 경우가 大部分이며 政府의 統制를 結果的으로 誘發하게 되고 經營者로

(7) Ibid., p. 48.

(8) Ibid., p. 50.

(9) Ibid., pp. 52-55.

(10) Ibid., pp. 55-59.

서 政府가 直接 關與하는 現象을 갖어온다. 要컨데 後進國에서 産業化의 唯一한 主導者로서 中産엘리뜨는 存在할 수 없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中産엘리뜨는 그 社會的 基盤에 따라, 多樣的 形態로 나타나지만 上記의 行爲樣式을 中心으로 하나의 理想型的 類型으로 成立한다.

(c) 革命的 知識階級엘리뜨.<sup>(11)</sup> 一般的으로 政治的인 革命過程을 通하여 前産業的인 支配階級과 傳統的인 文化를 完全히 除去한 위에 그 個人的 主導權에 依한 産業化 卽 自然過程으로서의 産業化를 否定하고 나오는 새로운 知識階級이 特定한 理念을 中心으로 結合하고 이들이 産業化의 主導權을 질때 이들을 革命的 知識階級엘리뜨라 한다. 이들은 모든 社會制度와 行爲樣式을 새로운 技術의 導入에 依한 急速한 經濟 發展에 適合하게끔 計畫的으로 改革하고 이를 위하여 一方的 強制的 手段을 使用하며 또한 餘他의 一切의 社會的인 對應勢力의 自然的 成長을 모든 手段에 의하여 拒否하게 된다. 産業化의 모든 環境은 이들 엘리뜨의 意思에 따라 恣意로 造作될 수 있으며 社會統制의 權力은 完全히 集中化하여 漸次的으로 政治的 指導者를 中心으로 한 集權의 政府에 唯一하게 歸屬하게 된다. 經濟는 政治의 支配下에 들게되고 「個人的 機會는 技能의 能力 뿐만아니라, 政治的 信任을 具備하는데 左右되며」<sup>(12)</sup> 個人的 意思의 主體性은 否定되고 集權化된 計畫的 意思에 依하여 個人的 責任이 規定되며 그와 같은 計畫은 무엇보다 急速한 經濟의 成長을 指向하여 모든 經濟的 政治的 手段이 勞動生産性의 提高를 目標로 動員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制度도 特定한 歷史的 地理的 環境 위에서 理念의 強調과 大衆의 呼應間에 「갂」을 가져올때」<sup>(13)</sup> 各種의 個性의 變化를 가지고 나타난다. 卽 強制와 自發, 集團과 個人的 어느한쪽에 기우러지는 傾向이 생긴다.

(d) 植民地管理者엘리뜨.<sup>(14)</sup> 被植民諸國 또는 그와 같은 經驗에 있던 나라에서 植民國의 經濟的 政治的 指導者에 依한 産業化가 推進되는 일이 있다. 이 類型의 엘리뜨는 그 存在形態가 너무나 多様하고 그것이 存續할 性質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하나의 理想型으로 成立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一般的으로 植民國의 産業化엘리뜨에 따라서 또 그 植民政策에 따라서 多樣的 影響을 준다. 歷史的으로 植民主義의 盛行은 植民國의 經濟的 理由에 基因하는 例가 많고 또한 그와 같은 經濟的 理由는 自國의 産業的 成長의 基盤에서 由來하는 것이기때문에 被植民國家에 對하여 産業化衝擊을 주는 重要한 役割을 하게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衝擊은 被植民國의 産業化를 保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植民地管理者가 永住하는 歸化의 形式을 取하기 前에는 一時的인 役割을 할 뿐이다. 歸化하는 경우에는 이미 植民엘리뜨의 性格은 벗어나기 때문에 이 類型의 엘리뜨는 經過的 類型에 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植民엘리뜨의 役割은 産業的 生産制度와 技術의 導入에 依한 産業化衝擊을 준다는 意味에서 既存의 傳統的 諸秩序를 破壞하는 役割을 하고 國民的 感情을 喚起하며 또한 本國의 産業化

(11) Clark Kerr & others,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1960, pp. 59—62.

(12) *Ibid.*, p. 59.

(13) *Ibid.*, p. 61.

(14) *Ibid.*, pp. 62—66.

엘리트의 行爲 樣式을 輸入한다는 意味에서 重要한 影響을 준다. 이와 같이 永續的 性質을 갖지 못하는 엘리트型인 植民地의 管理者가 주는 影響은 特히 大部分의 後進國이 被植民의 經驗을 갖춘 點에서 植民國의 影響을 直接 間接으로 받고 있으며 그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勢力圈에서 벗어날수 없는 境遇가 많다. 그 影響의 程度는 植民政策과 植民期間에 左右되는 것이지만 一般적으로 原住民에 對하여 産業化의 主體로서의 登場을 抑制하고 勞動者는 依存的인 類型으로 만든다.

(e) 民族主義指導者엘리트.<sup>(15)</sup> 民族主義를 標榜하는 各種形態의 集團이 産業化의 主導役割을 할때 成立한다. 「民族主義는 思想의 體系라기 보다 一種의 感情과 같은 것이어서…… 社會發展의 完全한 思想的 基盤으로서는 不足하지만」<sup>(16)</sup> 産業化 過程의 初期段階에서는 重要한 意志的 役割을 한다. 그 첫째 類型은 主로 舊秩序 또는 植民政策에 對한 抗爭을 契機로 形成되는 民族主義指導者의 類型이며 이들이 國民의 英雄으로 登場하여 強力한 個人的 影響力에 依하여 그들의 意志가 政治的 執權을 通하여 産業化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수가 있다. 때로는 非合理的인 産業化의 情熱에 支配되어 그 合理的 方途를 無視하고 霧靄氣造成的 戰略에 置重 하기도하며 때로는 民族主義의 標榜아래 強力한 指導力과 合理的인 産業化 計畫에 依하여 個人的 主導力과 政府의 役割을 效果의으로 利用하여 實質的인 産業化를 遂行 하기도 한다. 民族主義者들은 經濟的인 面보다 政治的인 經路를 通하여 一但 그들이 政治的 主導權을 잡으면 政府에 強力한 權限을 集中시키고 一般적으로 經濟部面에 對하여 強力한 支配權을 行事하며 勞動運動을 中心으로 産業勞動者를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그 支配下에 두게 되고 勤勉과 貯蓄, 團結을 強要한다. 그러나 民族主義는 一般적으로 하나의 必要에 따른 「外衣」에 不過하므로 實質的으로는 그 外衣를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 産業化에 對한 戰略이 多樣하게 나타난다.<sup>(17)</sup> 民族主義를 標榜하는 主體의 理念에 따라서, 그리고 그 出身에 따라서 産業化를 個人的 主導權에 依存하기도하며 政府가 重要한 執行者로 登場하기도 한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政府의 役割이 強調되며 經營者와 勞動者에 對한 指導力을 保有하려 하고 勞動組織과 勞使間의 諸般規準의 決定은 主로 政府에 依하여 施行된다. 民族主義엘리트 類型의 共通의 特徵은 國家的 主體性을 強調하는 點이다. 國內外的 環境이 産業化에 不利한 境遇에는 排他的인 主體性은 더욱 強調되며 産業化의 意慾만을 爲主로 하여 産業化의 具體的 過程을 無視한 目標指向的인 것이되고 「個人的 責任과 利己心에 依한 方途보다 經濟行爲에 있어서 愛國心의 強調」<sup>(18)</sup>를 通하여 産業化過程에 協力시키려하는 形態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勞動者의 自主的 主體意識과 利己的인 動機보다 國家的 主導下에 依存型이 되고 모

(15) Clark Kerr & others, op. cit., pp. 66--70.

(16) Ibid., p. 66.

(17) Ibid., p. 68.

(18) Ibid., p. 67.

은 個人的 經濟活動은 統制下에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以上 다섯가지 産業化엘리트의 類型에 비추어 後進國에서의 엘리트가 어떤 現實的類型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産業化戰略이 具體化되며 이에 따라 後進諸國의 勞動市場形態, 賃金水準, 勞動規定 및 勞動組織等 具體的인 勞使關係의 形成方向이 決定된다.

Ⅱ. 經濟的 環境: 産業化過程에서 勞使關係에 直接 關聯되는 엘리트의 戰略에 對한 客體的 環境中에서 重要한 것은 後進國産業化의 經濟的 制約條件이다. 卽 一定時點에 있어서 經濟的 環境은 一般的으로 資本蓄積狀況, 技術水準 그리고 對外資金의 獲得能力으로 볼수 있다. 卽 産業化엘리트가 當面하는 「短期的인 經濟的 制約은 (1) 先進諸國의 技術水準과 後進國自體의 技術水準과의 相對的 格差 (2) 國內의 既存自然資源 (3) 技術 訓練을 爲한 教育水準 및 勞動者의 經驗과 熟練 그리고 組織化能力, 그리고 經營者, 專門家集團, 政府行政家들의 能力程度, (4) 人口水準, 年齡分布, 人口成長率과 (5) 海外資金獲得能力과 輸出能力의 다섯가지가 主要한 要因이 된다」<sup>(19)</sup> 이와 같은 要因은 同一한 程度는 아니지만 모두가 勞使關係에 對하여 基本的인 影響要因으로 된다. 卽 (1)(2)의 要因은 産業의 技術需要와 勞動의 需要에 影響을 미치고 (3)의 勞動者의 技術과 訓練 그리고 (4)의 勞動人口는 勞動의 供給을 決定하는 要因이며 (3)의 經營者의 能力과 (5)는 勞動의 需要에 影響을 주는 要因이다. 主로 勞使關係의 經濟的環境은 勞動의 需給關係를 通하여 後進國一般의 企業內的 經營政策의 一 固定과 社會的賃金水準, 勞動市場構造等を 決定하게 된다. 이들 經濟的 要因은 長期的으로 一般型的인 것이 아니라 變動的인 것으로서 技術의 開發 乃至 導入, 資源變動, 人口의 變化等이 어떤 方向으로 變化하는가에 따라서 長期的으로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形成은 變化를 받게 된다.<sup>(20)</sup> 그러나 이와 같은 經濟的 要因이 後進國의 勞使關係에 미치는 影響은 國家單位로서의 後進國 勞使關係의 特徵의 分析要因은 되지 아니한다. 經濟的 關係 乃至 經濟發展過程과 關聯된 後進國의 勞使關係에 關한 經濟學的 分析의 領域이 되므로 勞使關係獨自의 直接的 分析對象은 되지 아니한다.<sup>(21)</sup>

Ⅲ. 傳統的環境<sup>(22)</sup>: 勞使關係의 主體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環境要因의 하나가 後進國固有의 文化的 傳統이다. 産業化와 함께 生成되는 勞使關係의 主體가 그 社會的 基盤을 支配하는 傳統的인 行爲類型의 支配를 받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特히 이와 같은 傳統的 行爲樣式이 産業化에 抵抗의일때 勞使關係의 構造는 各種의 適應의 形態를 띄게되며 産業化엘리트는 傳統의 基盤과 産業的 生産制度間에 生成되는 磨察을 最小限으로 하기 爲하여 産業制度를 傳統의 基盤에 適應시키던지 後者를 前者에 適應하도록 改變하던지 하지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産業化過程은 새로운 技術의 生産方式의 導入없이 成立될 수 없는 것

(19) cf. Ibid., Chapter 5.

(20) Dunlop, op. cit., p. 341.

(21) Ibid., pp. 5-6, p. 381.

(22) cf. Clark Kerr & others, op. cit., p. 77 ff.

이기 때문에 問題는 傳統的 基盤이 産業化와 背反되는 程度와 그 強直性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産業化 에리트가 어떠한 戰略을 쓰느냐에 左右되게 된다. 一般的으로 前産業的 文化的 傳統이 長久한 獨自에 基盤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것이 宗教와 一貫된 倫理基準에 依하여 強化되고 社會的 非可動性이 硬直한 形態로 長期間의 閉鎖性을 持續할수록 産業化에 抵抗的이 되며 이는 經驗的으로 「아시아諸國의 長久한 文化的 傳統은 新移民이 主로 西歐의 文化를 가지고 定住한 新生後進諸國보다 産業化에 抵抗的이라는 事實」<sup>(23)</sup>에 依하여 證明되고 있다. 어느國家의 境遇에도 自體의 前産業的 傳統이 存在하는 것이지만 歷史的으로 몇몇 文化는 産業的 變化에 보다 有利하게 作用한 것이 있는 反面에 大部分은 強直하게 抵抗的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傳統의 文化的 要因은 産業化에 對한 決定的 要因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産業化에리트의 性格과 그 戰略的 決定에 支配되는 것으로 強調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으로 오늘날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根本的 規制環境으로써 文化的 傳統의 影響은 重要한 要因으로 成立된다. 特히 「文化的 傳統이 強調되는 것은 産業化初期過程이기 때문에」<sup>(24)</sup> 後進國의 産業化와 함께 形成되는 勞使關係의 諸特徵은 그 影響을 顯著히 받게 된다. 長期的으로 産業化의 進展과 함께 傳統의 要因中에서 産業化에 抵抗的인 것은 一般的으로 除去되며 終局的으로는 産業的 變化에 適應되는 것이지만 後進國勞使關係의 現實的 形態는 그 主體의 行爲樣式에 있어서 傳統의 要因의 影響을 內包하면서 顯在化하는 것이다. 傳統의 文化要因이 勞使關係의 主體에 미치는 影響은 다음과 같은 要素에 依하여 考察할 수 있는데, 이는 特히 이들 要素가 抵抗的 經路가 되기 때문이다.

(1) 家族制度：一般的으로 傳統의 家族制度의 共通의 特徵은 單位家族이 獨立化하지 못하고 結合家族의 形態를 取하여 家族單位는 大家族으로 特徵化되고 血緣의 關係를 中心으로 成立한 傳統의 共同生活體의 行爲樣式을 保存하게 된다. 「大家族制度에서 收入은 共同基金으로 積立되어 家族員의 收入寄與程度를 不問하고 그 生活保障을 하는 一種의 社會保障의 役割을 하게 되고…… 一般的으로 家族忠誠의이고 血緣優先的인 行爲樣式을 가지게 된다.」<sup>(25)</sup> 그와 같은 行爲樣式은 産業機構에서 要請되는 責任과 權利의 個人的 主體性에 背反되는 要素로서 一般的으로 強直한 形態로 保存된다. 이는 賃金支給形態, 賃金水準, 雇傭制度和 一般的인 從業員管理觀을 根本的으로 制約하는 要因으로 作用한다. 또한 企業形態自體가 家族中心의 企業이 一般化되는 위에 人的構成은 個人的 能力基準에 依한다는 面보다 血緣的 關係와 個人的 忠誠度에 依한 機會의 配分이 一般化하게 되며 排他的 家族의 名分에서 由來한 外形의 資格의 優先觀念이 一般化하게 된다.

(23) Ibid., p. 78.

(24) Ibid., p. 9.

(25) Ibid., p. 79.

(26) ditto,

(27) Ibid., pp. 82-86.



(2) 階級 및 種族 :<sup>(28)</sup> 모든 社會은 收入, 教育, 職業, 文化的 遺産 등의 共通의 特性을 갖은 集團으로 形成되는 社會的 集團이 存在하여 이들이 階層的 秩序를 이루어 階級的 現象을 나타내지만 一般의 前產業的인 傳統的 社會에서는 經濟的인 面보다 身分의 結合關係에 依한 秩序를 形成하고 그것이 長久한 期間을 經過하는 동안 家族的 結合關係로 強化되고 때로는 宗教的 戒律과도 結合하여 強直性을 가지고 產業的變化에 抵抗하게 된다. 이와 같은 階級的 非可動性의 強直의 程度는 國家에 따라 다르지만 一般의 獨自의 文化的 傳統과 國家의 獨立의 歷史가 長久할 수록 抵抗力이 크게 된다. 後進國의 種族意識은 多數種族이 結合되어 있거나 種族間의 征服關係에서 發生하기도 하며 種族間의 障壁은 非可動性과 非合理的인 行爲樣式을 招來하는 原因이 된다. 民族主義의 感情은 植民政策에 由來되어 때로는 產業化에 利用되기도 한다.

(3) 宗教 및 倫理的 價値基準 :<sup>(29)</sup> 一般의 文化的 傳統을 가지는 後進國에 있어서 宗教와 倫理는 運命的 秩序觀과 現世否定的인 既存秩序의 保存을 強調하여 變化에 適應的인 形態로 誘導한다. 일, 特히 作業勞動을 賤視하여 生産의 勞力을 阻止하는 社會的 價値基準이 支配的인 것이다. 東洋社會에서 볼 수 있는 「時間의 循環觀」<sup>(29)</sup>은 一切事物의 運動法則에 對한 觀念을 支配하여 變更의 餘地는 없는 것이고 意識的인 計劃이나 改變을 爲한 人間의 努力은 全혀 無價値하며 非道德的인 것으로 看做된다. 이와 같은 一切의 自然과 環境에 受動的인 順應하는 原則이 社會秩序의 保存에 그대로 利用 된다. 무엇보다도 行爲에 있어서 經濟的 價値基準이 抑壓되는 데서 物質的 享有的 契機가 根本的으로 生産擔當階層에서 나오지 못하겠 作用하게 되어 決定的인 後落의 原因을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要因은 社會의 意識構造가 變化에 適應的인 되지 못하고 勞使關係의 主體가 保守的인 現狀維持를 指向하여 變化를 回避하는 傾向을 가지겠고 上下의 職務關係에 傳統的인 主人과 下人의 關係乃至 身分關係의 觀念이 그대로 移植되어 上位者는 下位者에게 服從을 期待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對한 保護의 義務를 依例 갖은 것으로 看做된다. 反面에 下位者는 上位者의 意思에 無條件 順從하고 그대로 執行하여야 하며 合理的인 職能上의 關係에도 非合理的인 從屬關係의 要因이 支配된다는 點에서 勞使關係의 形態에 影響을 미친다. 特히 產業化와 함께 合理의 人間關係에 依한 社會行爲原則은 이와 같은 非合理的인 傳統的 行爲基準의 非公式的인 作用에 크게 支配되어 勞使關係의 外形과 內的秩序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勞使關係가 現實的으로 以上과 같은 傳統的 文化的 影響을 어떻게 內包하고 成立하느냐 하는 問題는 一般的으로 產業엘리트의 類型에 따라 差異가 나며 이에 따라 傳統的 遺産을 除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利用하여 產業社會內에 保存하면서 產業的 技術의 導入을 遂行

(28) Ibid., p. 86 ff.

(29) ditto.

하여 勞使關係의 形態도 傳統的 行爲樣式을 保存하는 例가 없지 아니하다. 一般的으로 「傳統的인 宗教的 價値基準도 經濟發展에 深刻한 障礙가 되는 것이 아니며」<sup>(30)</sup> 特히 이는 長期的으로 産業化過程의 進展과 함께 改變 可能한 要因인 것이다. 오히려 問題는 産業엘리트가 어떤 形態로 어떤 能力을 가지고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며 이點에 있어서 勞使關係의 現實의 形態는 自體의 環境과 外部的 環境을 産業化에 轉向시키는 主體로서의 엘리트의 意思에 左右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外的環境<sup>(31)</sup> 마지막으로 後進國이 그 勞使關係를 形成하는 時期에 있어서의 對外的 環境이 重要한 要因이 된다. 特定한 一國의 勞使關係의 特徵은 經濟發展의 段階에 左右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形成의 年代的 時期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 側面을 分析的으로 區別할 수가 있다. 卽 一國의 勞使關係의 形成은 그 産業化의 初期에 形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産業化의 初期의 時點이 年代的으로 어느 時期에 있는가에 따라서 相異한 形態를 갖게 된다. 이點은 現實的으로 抽出하기 어려운 하나의 影響의 側面인 點에서 自體의 文化的 傳統의 環境과 같은 明確한 環境要因은 아니다. 19 世紀初에 形成되는 勞使關係의 諸環境과 20 世紀中葉에 産業化過程에 들어가서 形成되는 環境은 區別된다는 點에서 이와 같이 外部環境의 重要性은 明白해진다. 그러나 産業化初期時點에 있어서의 存在하는 諸環境은 現實的으로 相互關聯的인 것이기 때문에 明確히 要素를 分離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 時期的 差異가 또한 環境의 外的側面이라 規定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時期的 差異로 因한 影響은 環境의 內外的 側面に 모두 影響을 주기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으로 20 世紀中葉에 産業化過程에 直面하고 있는 後進諸國은 外的環境의 支配를 크게 받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것은 技術的으로 高度화된 先進諸國과의 相對的인 關係로 表現할 수 있으나 特히 勞使關係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다음과 같은것을 들 수 있다.

(1) 技術的 影響: 外部世界의 生産技術이 高度化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後國國은 이와 같이 높은 水準의 技術의 生産方法을 經濟性的의 理由에서 導入하려하며 또한 特定製品의 效用上的 必要에서 不得已 導入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 結果 나타나는 生産規模의 巨大化, 高度의 技術의 能力에의 要求, 複雜한 作業過程으로 因한 組織의 緻密化는 勞動의 需給關係 賃金水準 作業規定等의 面에서 勞使關係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

(2) 制度的影響: 先進된 나라의 諸般 制度는 그것이 企業內的의 것이던 企業外的의 것이던 一般的으로 後進國은 이를 輸入 乃至 模倣하려는 傾向이 있다. 勞使關係와 關聯되는 側面에서는 各種技術的 制約에 依하여 組織上的 必要에서 그 制度까지 導入되는 것은 勿論, 一般社會의 施策에 까지 이와 같은 內生的인 아닌 外來的 制度的 影響을 받는 것은 自體의 産業化經驗에 依한 制度的 創案이 없는限 不得已한 일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勞使關係의 法制的

(30) Ibid., p. 89.

(31) Dunlop의 勞使關係形成의 年代的時期的 問題와 産業化段階의 問題를 結合하여 解析한 것이다. cf. Dunlop, op. cit., pp. 308-312. Kerr, op. cit., pp. 105-106.

制度, 公式的 組織制度等の 移植이 一般的으로 行하여 진다.

(3) 思想의 영향: 勞使關係의 主體가 外來의 思想에서 받는 영향은 後進國의 경우 特히 顯著하다. 이들은 當初 傳統의 基盤의 영향아래에서 새로운 産業化와함께 일어나는 變化에 對하여 主로 外國의 經驗에 依한 精神의 理念에 依存하여 이에 對峙하러 한다. 自營經營者는 主로 先進的 中産階級을 模倣하러하며 勞動者는 先進諸國의 勞動運動의 理念과 行爲類型을 따르러 한다. 이때 政府는 一般的으로 産業엘리트의 하나로 登場하여 産業化를 指向하며 이 目的을 爲하여 適合하게끔 勞使間의 關係에 介入한다. 이때 大部分의 경우에 外形의 制度는 理想의인 것으로 輸入하고 實質的인 規制力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外來의 思想의 영향은 意識上으로는 「近代化의 理念의 表現」으로 一般化하게 되어 共通의 標榜은 언제나 近代의 産業主義의 倫理로 歸着되며, 實質的으로는 엘리트의 意志에 左右되는 勞使關係가 成立되는 것이 普通이다.

### 第三章 後進國勞使關係의 形成要因(一觀點)\*

I. 同質化要因<sup>(1)</sup>: 勞使關係의 成立이 近代의 産業社會의 形成을 그 前提로 한다면 産業社會의 普遍의 特徵인 機械的 生産은 中心으로한 産業的 社會의 純粹한 形態가 가지는 諸般特徵은 後進國의 現實의 勞使關係의 共通性을 만드는 同質化 要因이 될 수 있다. 産業社會의 勞使關係가 産業化의 過程을 통하여 形成되는 것이기 때문에 産業化 그 自體가 傳統의 社會의 諸基盤으로 부터 産業主義로의 轉換過程을 意味한다는 立場에서 보면 勞使關係의 現實의 存在는 不斷히 産業의 人間型을 強要하는 産業的 生産方法과 制度에 依하여 傳統의 行爲樣式에서 부터 産業的 行爲樣式에의 變化過程을 指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點에서 後進國 勞使關係의 主體의 類型이 窮極의으로 指向하는 目的點을 産業主義的 模型으로 定立할 수가 있다. 産業主義는 엄격한 意味에서 現實的으로 存在한다기 보다 抽象化된 「歷史的으로 産業化에 이르는 限界地點」<sup>(2)</sup>을 말하는 하나의 理想型的 概念이라 하겠다. 現時點에서 어느先進國의 境遇도 이와 같은 意味의 完全한 産業社會라 할 만큼 모든 部門과 모든 地域에 걸쳐서 完全한 産業主義로 轉換된 나라는 없다.<sup>(3)</sup> 그러나 現實的으로 成熟된 産業社會가 存在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産業主義의 特徵도 歷史的인 諸經驗을 基礎로 한 것이며 經驗의 事實을 多分히 導入할 一般的模型으로서 構成된다. 이와 같이 定立된 産業主義는 産業社會를 指向하는 모든 境遇에 있어서 하나의 目標가 되며 産業化의 各種 道程中 어느것이 選

\* 本觀點은 Kerr 前掲書에서 얻은 것이다.(cf. Clark Kerr & others, op. cit., p. 10. 下段)

(1) 産業化의 倫理가 産業의 人間을 어떤 形態로 만드는가를 주로 본 것이다. (cf. Clark Kerr and others, op. cit., Chapter 2. The Logic of Industrialism.)

(2) Ibid., p. 33.

(3) Ibid., p. 34.

擇되더라도 그 終局的 目標가 된다는 點에서 具體的인 產業社會로 하여금 同質化의 地點으로 引力을 作用하는 重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點에서 後進國의 境遇도 例外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 勞使關係도 産業化過程의 테두리內에서 成立되며 產業社會의 本質의 求心點과 根本的으로 同一한 方向으로 諸般 特徵이 形成되는 것이다. 勞使關係의 形成에 있어서 基本要素인 勞動者의 存在方式은 어떻게 決定되며 政府 및 經營者가 勞動에 對하여 어떤 形態의 要求를 提起하며 이에 對하여 勞動者의 行爲類型은 궁극적으로 어떤 形態를 指向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때 政府는 그 機能的인 面에서 어떤 役割을 하게되며 勞動과 經營은 各各 어떤 形態로 相互關係를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勞使關係의 中心問題이기도 하다.

産業社會의 機械技術的인 生産方法이 企業的 生産制度에 依하여 遂行된다는 事實은 産業社會를 根本的으로 規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다. 이와 같은 産業社會의 本質은 勞動者와 經營者를 特徵지우는 要素를 가지고 있으며 他們의 關係를 또한 特徵지우기도 한다. 그러나 産業社會의 特徵이 現實的으로 純粹한 形式으로 存在하지 않는 것은 技術과 制度의 現實의 存在는 恒常 어떤 形態이던 間에 現存 乃至 傳統社會의 基盤과 結合되어 存在하기 때문이다. (4) 産業社會가 그 機械技術에 依한 生産에 本質的 基礎를 갖이고 또한 技術的 要因이 諸般社會制度의 變化를 가져오는 根本要因<sup>(5)</sup>이 될때 産業社會의 成立은 이와 같은 技術中心의 合理的 社會論理를 받아 들이는데서 出發한다. 그것은 技術을 中心으로한 機械的 生産이 産業社會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産業社會가 生産配給過程에 近代科學의 基礎를 둔 機械的技術을 應用한다는 點은 또 다른 面으로 그것이 企業의 制度에 依하여 運用된다는 制度的 뒷받침에 依하여 그 本來의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 以上の 産業社會의 두가지 特徵은 産業主義의 理念型을 構成하는 出發點이 되며 또한 産業社會의 構成員으로 하여금 機械技術的인 能率性和 經濟的 合理性의 行爲基準을 要求하게 되고 制度的으로는 企業生産의 技術的成長과 擴大를 爲한 諸般 制度的 整備를 要求하게 된다. 理念型으로본 産業社會의 勞使關係는 根本的으로 이와 같은 構成員의 機械的 能率性和 經濟的 合理性을 要求하는 方向을 擇하게 되고 그 構成員間의 具體的 關係는 機械技術的이고 經濟合理的인 企業的 生産 및 配給職能을 中心으로 諸般制度的 形成을 보게된다. 이와 같은 産業的 人間型은 어떻게 形成되는가를 以下에서 보기로 하자.

(1) 産業化過程이 近代科學的인 諸技術을 生産過程에 應用하는데 그것이 企業制度를 通하여 遂行되므로써 經濟的 生産을 強調하게 되고 이에따라 利用可能한 技術을 一層 急速히 導入하게 된다. 科學革命은 生産方法과 製品 그리고 技術에 있어서 端初的인 急激한 變化를 惹起시키고 그 結果는 勞動者, 經營者, 政府와 그리고 그 相互關係에 對하여 여러가지 變化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勞動資源의 廣範한 技術의 熟練과 專門化된 機能을 要請하게 되고 專

(4) Clark Kerr & others, op. cit., p. 34.

(5)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1919, p. 374

門的인 技術的, 經營의 人間資源의 供給을 爲한 廣範圍한 對策이 企業內의 外的으로 制度化 되는 傾向이 重要한 現象으로 나타난다. 敎育制度, 研究機關, 企業自體의 專門的 研究와 企業 內外의 廣範한 技術訓練制度가 一般化되고 「科學의 傳把性」에 依하여 廣範한 範圍에서 特別 國內의 意味에서 「産業社會의 同質化」를 促進하게 되어 擴大된 産業社會의 技術的 可動性은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은 現象은 特別 産業의 人間型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影響을 미친다.

첫째로 産業社會의 論理는 그 勞動力의 技術의 性格의 特徵的인 것을 要求한다. 그 하나는 良質의 作業勞働의 專門化와 많은 專門的인 機能을 갖는 事務勞働을 要請한다는 것이다. 産業의 生産에 應用되는 技術變化가 격심하게 되는 것은 生産의 相對的인 經濟性의 問題에 支配되는 企業制度에 依하여 社會的 生産이 全的으로 擔當된다는 事實에 基因한다. 勞働은 恒常 이와 같은 急激한 技術的 變動에 適應하여 廣範하게 새로운 技術을 習得하거나 動的인 職務와 職責을 통해서 再訓練 되지 않으면 안된다. 産業社會의 技術的 要請은 또한 方面으로 勞動力의 地域的 移動과 社會的 可動性을 促進하게 되어 産業社會는 「開放社會」로 特徵化된다. 技術的 特徵이 動因이 되어 形成된 「開放社會」<sup>(6)</sup>는 모든 傳統의 「카스트」와 傳統的身分, 性, 民族等의 障礙를 解消시키게 되고 個人的 能力을 最優位에 두는 傾向이 생긴다. 勿論 이경우 에도 純粹한 形式이 存在할 수는 없는 것이며 産業社會의 高度化에도 不拘하고, 出生基盤에 依한 機會의 差異가 더욱 強化되는 現象이 存在한다. 그러나 出生의 背景과 遺産은 그 自體가 重要한 것이 아니라 「機會의 範圍에 影響을 준다」<sup>(7)</sup>는 意味의 重要性밖에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傾向은 産業過程에서의 勞働의 論理가 細分化된 明文的인 制度의 規定에 依하여 外制的 強化를 받는 過程을 通하여 公式적으로 明示되고 結果적으로 個人中心의 社會的 責任義務의 主體觀이 一般化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産業社會의 構成員은 産業主義의 基本原理인 技術的 能率主義와 經濟合理主義의 思考方式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産業社會의 論理는 그 勞動力의 構造의 面에서 諸般 特徵的인 樣相을 갖어온다. 卽 職種 및 職務分類의 多樣化와 報酬率 및 作業場의 相對的인 責任 權限의 多樣化를 보게 된다. 廣範한 敎育의 導入으로 이와 같은 勞働의 養成과 訓練은 可能하지만 本質적으로 勞動力은 同一形態의 大衆勞働이 아니며 互換的인 性質을 갖이지 못하는 것이 된다.<sup>(8)</sup> 複雜多岐한 産業의 技術體系에 依하여 이에 必要한 技術的 責任과 勞働條件에 따른 生産機能의 重要度에 따라서 技術合理的인 勞働階層構造를 成立시키고 各階層에는 機能의 技術的인 專門化가 遂行된다. 職務評價와 賃金計劃은 勞動力을 엄격히 그 機能과 執行成果에 따른 報酬體系에 依하여 일의 技術的 要請을 中心으로 秩序化하며 이와 같은 秩序는 前記의 個人的 行動基準의 合理化와 함께 産業의 人間의 職能的 責任意識을 高度化하는 傾向을 갖인다. 結果的

(6) Clark Kerr & others, op. cit., p. 35.

(7) Ibid., p. 56.

(8) Ibid., p. 38.

으로 勞動의 管理는 일의 技術的能率中心으로 合理化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個人的 合理的 行爲를 造成하는 諸般合理的인 管理規定이 細分化된다. 따라서 産業社會는 그 經營內部構造와 作業및 全般的 勞使關係 構造에 對해서 各種 細分化된 規定의 明文化된 體系를 더욱 公式化 하는 傾向이 存在한다. 勞動의 諸般活動은 이들 規定을 中心으로 遂行되고 調整되며 合理的思考를 強要받은 勞動者는 이 勞動規定에의 遵守와 適應을 通하여 産業主義의 論理에 適應하게 된다.

(2) 다음 産業社會의 特徵은 大規模의 組織을 낳게 하며 國家的 規模에서는 巨大한 政府 組織과 社會에서는 大規模의 企業組織을 形成하여 어디서나 그 管理와 調整을 爲한 組織의 運營의 問題가 擡頭된다. 各種의 公式的 規定이 廣範하게 制定되어 企業內의 調整과 協同을 圖謀하게 되고 産業社會의 目的인 能率과 經濟性의 增大를 指向하게 된다. 産業社會가 政府 役割의 比重을 크게 만드는 것은 根本的으로 技術的 原因에서 온것이다. 都市의 成長은 勞動力和 産業社會의 經濟生活를 中心으로 成立된 것이지만 根本的으로 技術的 原因에 依하여 人口의 地域의 集中과 規模의 擴大를 同時에 가져와서 資源, 製品 및 人間間의 距離와 活動範圍가 迂回 乃至 擴大되어 中間的인 空間을 對象으로 하는 公共事業의 擴大가 수반하게 되고 이는 또 軍事的, 經濟政策의 要請에 依하여 擴大되는 契機와 結付되어 더욱 政府의 活動領域은 커진다. 이와같은 結果는 自體의 行政組織內에서의 政府의 雇傭者로서의 地位가 擴大될 뿐만 아니라 公共事業의 經營者으로써 政府의 活動은 政府가 經營者으로써 勞使關係에 미치는 影響力을 增大시키게 된다. 一般企業의 規模가 大規模化하고 이에 따른 專門經營者의 出現과 함께 政府의 地位는 勞使關係에 있어서 政治的 調整者로서의 地位와 함께 雇傭者로서의 地位를 가지게되고 産業化 論理를 社會的으로 適用하는데 보다더 立場의 伸縮性을 가지고 作業場과 廣範한 社會에서의 勞使關係를 規定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게된다. 政府企業의 專門經營者의 雇傭은 一般的으로 社會全般的인 勞使의 緊張關係를 緩和하고 그것이 制度的 秩序를 通하여 解決되는 傾向을 만드는 重要한 하나의 原因이 된다.<sup>(9)</sup>

(3) 産業化의 過程은 上記의 技術的 經濟的 特徵의 基盤위에서 共通理想, 信念, 價值判斷을 社會的으로 形成하여 그 構成員 個個人 및 集團相互間을 結合시킨다. 이와 같은 共通規準은 根本的으로 앞서 본 能率 및 合理性의 原理의 基準위에서 技術第一主義로 나타나기도 하고 生産主義, 勤勞主義, 進歩主義로 나타 나기도 한다. 그러나 根本的인 特徵은 技術的 變化에 妨害가 되는 一切의 規準은 無差別的인 除去를 한다는 意味에서 技術適應的인 社會的 價值規準을 成立시킨다고 할 수가 있다. 能力을 中心으로한 個人的 機能의 平等觀이 支配의 이 되며 教育의 重要性이 認定되는 것은 科學的 知識의 實用性을 重要視하고 教育을 社會的 可動性의 手段으로 보기때문이며 이와 같은 點에서 産業主義는 모든 家族, 階級, 宗教, 民族的, 身分의 基盤을 技術適應的인 것으로 만든다. 産業主義는 그 生産品에 높은 價值基

(9) Dunlop, op. cit., pp. 311—312.

準을 주게 되고 個人과集團은 보다 높은 生活水準의 集團을 模倣하는 傾向이 強하다. 産業社會는 앞서 본바와 같이 그 技術的 經濟的인 條件에 依하여 特히 높은 勞動強度를 本質的으로 要求하게 되고 作業量과 質의 標準이 正確하고 細分化되고 그 成果에 對한 經濟的 報酬는 合理的으로 保障하게 되며 一般的으로 勤勉과 能率이 하나의 産業化의 論理로써 成立한다. 産業主義에서는 勞動의 指揮와 動機造成的 確固한 論理와 理念을 必要로 하며 嚴格한 監督과 強要의 論理는 適用될수가 없다. 要컨대 産業社會는 그 手段이 무엇이던간에 傳統的 社會에서는 찾아 볼수 없을 만큼 높은 水準의 作業能率과 個人的인 責任感을 醸成하게 된다.

Ⅱ. 異質化要因: 앞서 본바 産業社會의 論理는 모든 非産業社會의 基盤과 現實的으로 一致하지 않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歷史的으로 最先의 産業化의 經驗을 가진 國家의 境遇도와 이와 같은 非産業的 社會에 産業的 論理를 適用하여 産業社會로 轉換하는데 成功한 하나의 特殊한 例에 不過하다. 그 轉換過程에서는 그 主體者 卽 主動的 役割을 한 指導者層이 前産業的 環境에서 成長하여 産業化의 論理의 實現을 目標로 傳來의 文化的 傳統的基盤의 抵抗에 對하여 適應과 除去의 過程을 通하여 그 目標를 階段的으로 成就한 經驗的인 例에 不過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經驗이 가지는 價値는 産業社會를 高度의 形態로 實現하여 後進諸國에 對하여 産業化의 本質的 論理를 經驗的으로 提示하므로써 産業化過程을 高度의 水準으로 提示하였다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다. 餘他의 後進國의 境遇에는 各個의 獨特한 傳來的 環境을 가지고 새로운 産業化의 經驗에 直面하게 되며 또한 그 産業化의 時點에 있어서의 相異한 外的環境圈에 있다는 事實이 그 勞使關係의 形成過程으로서의 産業化過程의 特徵을 갖어오게 한다. 後進國의 産業化에 있어서는 이들이 共通의 産業主義的 目標를 指向 하더라도 그 現實的 過程은 根本的으로 各各 獨特한 環境에 直面하여 多樣한 差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形成은 이와 같은 各國의 特殊한 環境에 依하여 根本的으로 差異를 生成하게 된다. 앞서 본 後進國의 勞使關係를 規定하는 諸環境의 要因에서 積極的인 規制要因 卽 主體로서의 엘리트를 意志的 役割을 한다는 意味에서 除外하면 餘他의 環境은 바로 이와 같은 差異形成의 要因이 되는 것이다.

Ⅲ. 現實化要因: 後進國의 勞使關係의 形成이 環境의 影響을 받는다는 것은 環境이 制約的 要因으로 作用한다는 側面을 본 것이다. 그러나 産業化를 意志와 關聯시켜 意識的인 制度化過程으로 보는 觀點에 서면 그와 같은 環境의 制約은 程度의 問題에 不過하게 되고 窮極的으로 勞使關係는 主體의 意思決定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고 環境이 어떻게 造成되느냐 하는 問題 卽 主體의 問題가 中心點이 된다. 이때 環境이 主體를 어떻게 形成하느냐 하는 點은 主體가 이미 環境을 바탕으로 形成된 存在이기 때문에 主體의 存在 그 自體는 環境의 勞使關係에 對한 影響을 全的으로 內包하고 다시 産業化의 意志로서 環境을 造成하게 되는 것이므로 勞使關係를 現實的으로 決定하는 終局的 要因은 産業化의 主體에 歸着된다. 産業化主體는 그 自體가 반드시 勞使關係의 主體가 될 수는 없으나, 一般的으로 勞使關係의 主體 卽

經營者 勞動者 政府의 三者는 産業化의 主體에 가장 重要한 構成員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後進國에서 産業化의 主導權이 政府와 經營者에게 있는 것이 一般의이며 이때 그 主體가 앞서 본바 엘리트의 類型에 비추어 現實的으로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勞使關係를 具體的 存在가 決定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엘리트가 어떤 決定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各種의 環境要因은 現實的으로 勞使關係에 對하여 意味를 가지게 된다. 後進國에 있어서 現實的 엘리트의 存在를 앞서 본 類型中에서 重要한 것을 擇하여 그것이 勞使關係 主體間의 關係에 어떻게 決定하는 가를 보아야 하겠다.<sup>(10)</sup>

(1) 經營者의 勞動者에 對한 態度: 經營者의 勞動者에 對한 關係는 前者의 一般的態度 뿐만 아니라 그들의 對勞動者政策 그리고 諸規定關係를 包含한다. 封建的 門閥엘리트의 경우에는 經營者는 勞動者에 對하여 一般的으로 溫情的인 傾向이 되고 作業場內에서 뿐만 아니라 一般社會에서까지도 經營者는 勞動者를 指導하고 保護하는 立場에 서서 勞動者는 本質的으로 依存的 存在로 보게 된다. 具體的으로는 家族手當, 住宅手當, 各種의 獨自的인 社會保障的 施策等 勞動者의 個人的인 事情을 크게 配慮하는 形式으로 나타난다. 勞動者에 對한 經營者의 權限은 人格的인 것이며 廣範하고 絕對的인 反面에 溫情的인 關係에 依하여 그것이 受容되어 經營內에서는 經營者가, 社會的으로는 政府가 모두 新興勞動者에 對하여 溫情的 態度로 一貫하게 된다. 反面에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에는 勞動者와의 關係는 마치 商品市場의 去來關係와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傾向이 있다. 作業場에서나 社會에서나 經營者는 勞動者의 個人 乃至 그 家族關係에 對하여 極히 無關한 立場에 선다. 勞動者는 自由로운 獨立的 個人으로 認定되고 단지 契約에 依한 去來關係로 보게 된다. 勞動에 關한 報償은 大部分이 賃金의 形態를 取하며 手當이란 名目은 그 比重이 極히 적게 나타난다. 經營權限은 作業場의 諸般規定에 依하여 決定되고 制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個人的인 權限行使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비록 經營權限이 廣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規準과 節次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社會的으로 政府는 新興勞動者를 獨立的인 市民으로 看做한다. 다음 急進的 엘리트의 경우에는 經營者는 勞動者를 全般的 計劃目標에 對한 手段으로 보는 傾向이 있다. 作業場內에서는 集團的으로 溫情的 取扱은 하며 作業場의 規定은 廣範한 社會的 利益과 一致되는 基準에서 作成된다. 卽 勞使關係의 制度는 公的 規定을 中心으로 溫情的이 되며 經營者 個人的 判斷이나 意思에 依하여 支配 될 수는 없는 것이다. 經營者의 權限은 作業社會 밖에서 주어진 規定에 依하여 주어지며 이는 廣範하고 絕對的인 것이 된다. 社會的으로 政府는 新興勞動者를 指導받아야 하는 存在로 보게 된다.

(2) 勞動者의 經營者에 對한 態度: 産業化엘리트의 類型에 따라 勞動者의 經營者에 對한 態度가 다음과 같이 決定되는 一般的 傾向이 있다. 이는 論理的으로 앞서 본 經營者의 對勞動者 態度의 逆이 되는 것이지만 簡單히 보면 다음과 같다. 封建的 門閥엘리트의 경우에는 勞

(10) Dunlop, *ibid.*, pp. 317-334. cf. F.H. Harbison and C.A. Myers: *op. cit.*, pp. 68-80.



動者는 人格的으로 依存的 類型이 된다. 個個의 勞動者는 溫情的인 經營者에 의한 引導를 받고 이는 個人의 經濟的 社會的인 모든 領域에까지 擴大된다. 또한 勞動者는 一般的으로 社會問題에는 無關心하여지며 經營者의 善意的인 人情의 配慮에 依存하게끔 된다. 中產階級 엘리트의 경우에 勞動者는 前述한 바와 같이 獨立的 勞動者이다. 이 경우 勞動者는 作業社會 內에서는 職能上 經營者의 指揮에 服從하지만 社會的으로는 平等한 人格體로 보며 相互關係는 規定에 依據한 職能上의 關係로 나타난다. 社會的으로는 一般的으로 專門的인 技術的 訓練보다 公衆教育의 機會가 提供되어 一般의 教育水準이 急激히 上昇하는 傾向이 있다. 또한 急進的인 엘리트의 경우에는 勞動者는 依存的 階層으로 特徵化되며 勞動者의 教育은 自由로운 一般教育보다 專門化된 技術訓練過程이 主로 되며 勞動者는 經營者에게 個人的 事情을 依存할 수 없게 되고 共通的 問題는 一般的인 集團的 溫情의 形式으로 規定화된 形式에 따르게 된다.

(3) 勞動者組織의 役割: 封建的 門閥엘리트는 一般的으로 勞動者의 組織化를 願하지 아니하며 또 形式的으로 組織된다 하더라도 作業社會內에서는 經營者의 溫情的 對勞動者管理活動을 補助하는데 그치고 經營者의 意思決定에 對하여 別다른 制約을 주지 아니한다. 產業別水準의 組織도 廣範한 形式으로 最少限의 對經營者規制의 性格을 나타내지만 이들은 作業場 組織과 緊密한 連結을 欠하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作業社會의 勞使關係와도 거리가 먼 것이 되어 勞動者自身들과의 關係는 形式的인 것이 되어버리는 傾向이 있다. 흔히 勞動者의 組織化는 위로부터 政治的으로 이루어 지고 作業社會와는 間接으로 關聯을 가질 뿐이므로 勞動者의 自發的 集團이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中產階級엘리트는 一般的으로 가장 勞動者의 組織化를 認定하고 그 社會的인 價値를 評價하여 支援하는 態度를 取한다. 作業場의 水準에서나 產業別水準에서의 組織은 經營을 規制하게끔 組織化된다. 그것도 根本的으로 獨立的 勞動者自身이 主動이 되기 때문이며 廣範한 社會的 組織으로 發展하여도 各組織階層間의 直接的 權限의 體系가 形成되고 相互 密接히 調整되어 上層組織은 作業場의 條件에까지 緊密히 關聯되어 作業場組織에서 부터 全國組織에 이르기까지 經營에 對한 統制體系가 確立되어 있으며 一般的으로 勞使關係의 問題는 下位에서 始作하여 經營者와 交渉된다. 勞動者의 政治的 組織은 經營과의 關係에 直接 關心을 가지지 아니하고 一般的인 社會的 問題에 있어서 經營者는 勞動者의 組織的인 政治活動을 正當한 것으로 認定하게 된다. 그러나 勞動者의 政治的 組織은 產業엘리트에 對한 直接的 挑戰을 回避하게 된다. 끝으로 急進的인 엘리트의 경우 勞動者組織은 그 自體의 必要에 의해서 作業場別 產業別水準에서 形成된다. 勞動者組織은 經營者와의 關係에 對한 目的보다 勞動者自身の 教育 訓練과 生産增進을 爲한 組織的 刺戟을 爲한 代行機關으로 成立된다.

(4) 勞動者組織間의 競爭關係: 封建的 門閥엘리트의 경우 傳統的인 基盤에서 形成된 社會的 差別과 宗教等的 派閥에 의하여 勞動者組織이 作業場內에서도 分別的인 形態로 나타나서

勞動者의 團結의 基盤自體가 脆弱한 것이 된다. 勞動者의 組織에 이와 같은 分裂이 일어나면 그것이 各層水準의 組織에 一般化하여 單一經營者와 數個勞動組織의 關係가 成立되고 이들 分裂된 組織은 모든 活動에서 相互競爭的 關係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組織化의 效果는 一般的으로 減少하게 된다. 一般的으로 이와 같은 分裂된 組織化의 傾向도 放置하는 것이 普通이다.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 勞動者의 組織은 職能別 產業別로 組織化되고 이들間의 競爭은 甚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競爭도 勞動組織이 勞動者의 意思를 더욱 正確히 反映하고 그것을 充足시키는 役割을 한다는 意味에서 認定되는 것이 普通이다. 急進의 엘리트의 경우 多元組織은 存在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競爭은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組織化自體가 計劃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理由로 해서 實質的으로 一般勞動者와 勞動組織의 上位者間의 緊張關係가 存在하게 된다.

(5) 勞動運動의 構造: 封建的 門閥엘리트의 경우 產業的 基盤에 對하여서도 最少의 制約을 주는 形態의 勞動組織이 形成한다. 勞動組織은 一般的으로 實權없는 作業場組織과 實質的으로 勞動者의 地位에는 無關心한 上位의 政治的 組織이 相互遊離하여 存在하면서도 兩者는 勞使關係의 具體的 內容보다 政治的 關心을 中心으로 相互 直結되는 面을 가지고 이것이 強力한 組織間의 聯合的 關係에 依한 統制로 나타난다.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 各種 勞動組織이 形成되고 이들의 機能은 廣範한 形態로 나타난다. 組織構造의 多樣性은 緩慢한 自然的 成長에 基因하는 것이며 聯合的 組織化의 性格보다 個個勞動集團의 自由結合의 原則을 가지게 된다. 組織構造가 形式的인 聯合을 取하여도 實質的인 機能은 廣範한 分權化에 依하여 個個 組織單位의 機能이 重要한 役割을 차지하게 된다. 急進의 엘리트의 경우 一般的으로 勞動組織의 構造는 몇몇 產業別組織을 中心으로 하여 構成單位組織에 對하여 高度의 集權的 構造를 形成한다. 集權構造의 上位에서는 政治的으로 決定된 經營者와 勞動者와의 關係의 諸原則下에 勞動者의 行爲가 規制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勞使關係의 維持를 期하게 되며 이를 爲해서 上位의 意思가 正確히 一律的으로 下位에 反映되는 集權的 統制의 組織構造가 形成되어야만하기 때문에 競爭的 組織은 一切 認定되지 아니한다.

(6) 勞動組織의 資金源泉: 勞動組織의 活動도 다른 어떤 組織과 마찬가지로 그 運用資金의 源泉과 그 運用狀況에 따라서 큰 制約을 받게 된다. 封建的 門閥엘리트의 경우에는 勞動運動에 對한 資金의 뒷바침은 脆弱하다. 勞動組織의 分裂과 特히 勞動者의 所得水準이 낮은 경우에는 그 源泉이 極히 制約되어 있다. 그것은 主로 溫情의 經營에 原因도 있으며 社會가 一般的으로 經營者의 溫情과 같은 形式的 依存的 關係에 있기때문에 勞動組織의 活動自體의 資金의 뒷바침에 對한 必要性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勞動組織自身이 資金基盤에 對하여 關心을 크게 두지 아니한다. 때로는 政府가 이에 對하여 補助를 하기도 하는데 이도 勞動者의 獨自의 組織運動을 助成하는 意圖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다음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 一般組織成員이 主資金源이 되며 勞動組織의 運營者는 이 資金의 確保에 主力하게

된다. 그것은 構成員에 보다 獨自的인 形態의 서비스와 또한 經營者에 對한 獨立的인 勢力을 行使하기 爲해서 이다. 勞動組織은 政府의 補助를 받지 아니하며 自體의 資金을 充實히 하고 또 組織事業自體를 合理的으로 運營하여 資金源을 繼續的으로 確保하는데 努力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急進的인 엘리트의 경우 資金은 主로 組織維持와 構成員에 對한 奉仕를 爲하여 使用되며 資金源은 構成員을 中心으로 充分히 確保된다.

(7) 勞動運動指導權의 源泉: 勞動運動의 指導權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勞動組織의 性格은 判異한 樣相을 나타낸다. 卽 그것이 直接 勞動者에서 나오는가 또는 外部에서 오는 것인가에 따라서 큰 差異를 갖어온다. 封建的인 門閥엘리트의 경우에는 勞動運動의 指導者는 主로 知識人과 政治的인 理念指向的인 部類에서 나온다. 이때 이들의 勞動活動의 範圍는 全國的인 것이거나 적어도 產業水準에 머무르며 作業場의 狀況과는 遊離된 內容으로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이다. 따라서 이들의 主關心은 社會政策的이거나 全般的인 立法의 領域에 머무르고, 보다 勞動者에게 利害가 直結되는 作業現場의 事情은 無視되는 것이 普通이다. 이 類型의 엘리트에서 特徵的으로 나타나는 一般教育의 無關心은 이들 知識人들의 指導權을 強化하게 된다. 이들 指導者들의 所得은 반드시 組織內의 資金에서 뿐만아니라 政治活動等을 通하여 他分野에서 流入된다. 그러나 直接 勞動者層에서 指導者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 類型의 엘리트는 一般的으로 知識人型指導者를 擇하는 傾向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다음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 勞動指導者는 大部分 直接 現場勞動者層에서 나온다. 이들의 主關心은 直接的인 作業過程에서의 勞使關係이며 企業의 實踐的인 作業活動을 中心으로 經營者의 意思決定을 作業現場單位에서 規制하려 하게 된다. 作業現場의 勞動組織과 產業別水準 乃至 聯合組織과의 關係가 緊密히 連結되어 있어서 下位로부터의 指導가 實質的으로 더욱 強調되는 傾向이 있다. 勞動組織은 專門的인 職員을 雇傭하고 職業的인 勞動運動專門家를 養成하게 된다. 急進的인 엘리트의 경우 政治的으로 決定되는 것이 普通이다. 勞動指導者의 地位는 政治的으로 保障되고 이들은 政治理念에 符合하는 勞動運動을 形成시키는데 主導役을 擔當한다.

(8) 勞使紛爭에 對한 態度: 封建的인 門閥엘리트의 경우 紛爭을 極히 劣惡視하게 되고 溫情的인 基準에서 紛爭은 勞動者의 道德的인 背信이거나 經營者의 不誠實로 判定된다. 紛爭은 經濟的인 損失이라는 意味에서 보다 圓滿한 產業社會의 理想에 어긋난다는 意味에서 敬遠된다. 이와 같은 點에서 勞使紛爭은 社會的으로 더욱 深刻한 結果를 惹起하는 것으로 看做되고 때로는 紛爭이 示威的인 形態로 發展하기도 하여 이경우에 大概는 紛爭은 一旦 抑壓되고 勞使는 各各 原狀의 位置에 돌아가서 圓滿한 關係로 再調整되는 形式을 取한다. 다음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에는 勞使紛爭을 마치 商品市場에서의 財貨去來時의 紛爭과 根本的으로 같은 觀點으로 보게 되고 「勞動力을 팔고 사는것은 自由」라는 見解가 支配한다. 勞使間의 紛爭이 社會에 對하여 根本的인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어느程度의 紛爭은 公的인 介入없이

私的인 合議를 갖으며 이는 勞使雙方에 對하여 自身の 意思決定의 結果에 대하여 보다 責任있는 活動을 하게 한다는 意味에서 重要な 價値를 認定하게 된다. 勞使紛爭에 對한 社會的 關心은 但只 그것이 關聯者의 健康과 安全 그리고 國家의 安全保障에 關係될때만 禁止되는 것이며 紛爭의 自由를 全的으로 認定하게 된다. 急進의엘리트의 경우에 勞使紛爭은 非經濟的이란 理由에서 하나의 사치로 보게 된다. 이들은 根本的으로 勞動者와 經營者間의 利害의 相反은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紛爭 그 自體는 政治的 威脅으로 보게 된다. 急進의엘리트自身이 舊政權을 掌握하는데 勞動勢力을 利用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勞動紛爭도 政治的 反抗이 아니면 惹起될 수 없는 것이란 政治的 認識基準이 成立하게 된다.

(9) 爭議解決의 方法과 調整者 : 어느나라의 경우에도 勞動爭議가 直接 經營者와 勞動者의 當事者間에서 解決되는 例보다 政府의 介入이 一般化되는 것이 後進國의 共通的 現象이다. 그러나 그 介入의 性格은 相異하여 封建的 門閥엘리트의 경우에는 無條件 政府가 介入하여 私的인 當事者間의 解決에 一任하지 아니한다. 勞使關係에 關한 政府의 決定은 모든 境遇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그 方法은 判定的이고 그와 같은 決定權은 또한 實質的 影響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에는 첫段階로 當事者間의 解決機構를 通하는 것이 普通이며 또한 그와 같은 方法에 依存하려는 意圖에서 私的인 仲裁나 調整이 施行된다. 萬一 政府에 依한 介入이 不得已한 경우에도 그 方法은 주로 各種 合議에 到達할 수 있는 手續의 方向을 可能한 限 提示하는 方法을 取하고 強權의 發動은 回避된다. 社會大衆의 意見이 一般的으로 이에 큰 影響을 미친다. 介入에 依한 解決이 政府가 決定하는 內容을 取하더라도 普通 當事者의 同意를 얻은 위에 이루어 지는 것이 一般的이다. 急進의엘리트의 경우 政府의 仲裁機構는 利用되지도 않으며 特別히 設定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것은 爭議 그 自體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엘리트의 意思대로 調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間或 實質的 爭議가 있을 때도 政府의 決定은 決定的 役割을 하게 된다.

(10) 勞使關係研究專門家의 傾向 : 封建的엘리트의 경우에 勞使關係는 一般的으로 政治的 法律的인 것이며 勞使關係의 接近도 그와 같은 方向에서 勞使關係의 法律的 意味가 가장 重要視되고, 事實 그 自體를 全般的인 對象으로하여 分析하려는 傾向은 없다. 卽 勞使關係問題의 解決에 對한 決定的 役割은 法律專門家들의 法律的 接近方法의 結果를 應用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 中產階級엘리트의 경우에는 賃金과 勞動市場이 勞使關係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分野이며 一般的으로 經濟專門家들이 이 領域을 中心으로 勞使關係를 理解하려 하게 되고 勞使關係의 經濟學的 接近方法을 中心으로 하여 勞使關係의 現實的 存在를 說明하려 한다. 卽 經營者와 勞動者間에 成立하는 賃金決定과 그 經濟的 歸結이 重要한 勞使關係專門家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勞動市場, 紛爭의 解決等이 또한 그들의 關心의 焦點이 된다. 마지막으로 急進의엘리트의 경우에는 生産性만이 唯一한 關心事이다. 모든 勞動者 및 經營學者와 그들의 相互關係에 對한 關心은 生産性的 提高와 關聯시켜서 理解된다.

以上과 같은 重要問題를 例로하여 勞使關係의 現實的인 形成이 産業엘리트의 意志에 의하여 決定되는 面을 보았다. 이와 같은 方法은 後進國의 勞使關係를 現實的으로 決定하는데, 어떤 要因이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가 하는 問題意識에서 나온 것이다. 實際로 勞使關係의 形成은 數많은 變數가 關聯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은 方法으로 分析할 수 있는 根據를 提示할 수 있는지는 疑問이지만 적어도 産業化의 過程과 함께 形成되는 勞使關係가 産業化 엘리트의 類型에 따라서 決定되는 面이 있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는 內容을 強調한 것은 될 수 있다. 後進國에 있어서 産業化엘리트의 問題는 實質的으로 産業化의 倫理를 指向하는 그 産業化過程에 있어서 産業化의 統一的 意志의 存在與否에 依하여 決定되며 그 現實的 存在는 多様な 構成成分을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엘리트가 現實的으로 가지는 영향력도 産業化意志의 統一性에 따라서 또는 特定部類의 集團의 主導力量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一般的으로 勞使關係의 主體가 되는 經營者와 勞動者 및 政府의 三主體는 産業化意志의 主體로서 가장 重要的인 位置에 있게 된다. 後進國의 경우에는 經營者와 政府의 役割 特히 政府主體의 能力있는 主導力에 가장 큰 重要性을 두게 되는데 그것은 自體內의 經營即 産業生産의 直接的 管理者의 能力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勞使關係의 形成도 終局的으로는 經營者와 勞動者 (이경우에 雇傭者로서의 政府는 經營者에 包含된다)의 關係이며 政府의 地位는 仲介的인 것이기때문에 政府가 産業化엘리트로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면 클수록 그 勞使關係의 形成도 直接的인 産業的 雇傭關係의 當事者間의 關係라기 보다 三者間의 關係로 나타나고 그 關係를 決定하는 엘리트의 意志는 三者間의 合議된 (또는 受容된) 現實的 關係를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即 主體間에 受容되는 現實的 意志로서의 엘리트의 意志는 바로 現實的인 勞使關係의 類型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서울大學校商科大學附屬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